“내 안에 없는 ‘비스트’ 본능 꺼내려니 스트레스”

영화 ‘비스트’서 형사 한수 역 맡은 배우 이성민

색다른 이야기·메시지 끌려 작품 선택
액션 중 폭력 행사하는 장면 가장 힘들어
자신 없어 하는 부분 연기 큰 경험
이 세상에 배우 숫자만큼 캐릭터 있어

영화 ‘비스트’는 제목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 희대의 연쇄살인마를 잡기 위해 폭주하는 두 형사 이야기를 그린다. 사건 그 자체를 쫓기보다, 목표물 앞에서 꿈틀대는 인간의 짐승 같은 본성을 까발리는 데 집중한다. 통상적인 범죄 스릴러 영화와 차별점이다.

배우 이성민(51)은 살인을 은폐해주는 대가로 살인마에 대한 정보를 얻지만, 이 사실을 눈치챈 라이벌 형사 민태(유재명)에게 쫓겨 파국을 향해가는 형사 한수를 연기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성민은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정도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면서 “워낙 무겁고, 감정이 어두우니까 찍으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됐다”고 떠올렸다.

그는 색다른 이야기와 메시지에 끌려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한다.

“보통의 형사물은 범인을 잡는 이야기지만, 이 작품은 형사가 형사를 잡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안에 괴물이 있다는 메시지도 독특했어요. 원칙을 지키는 형사와 원칙을 파괴하는 형사, 진짜 악당이 가진 공통분모를 생각해볼 수 있게 화두를 던진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성민은 이 작품에서 실제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끓어오르는 감정 연기를 선보여 ‘연기 비스트’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런데도 그는 “사실 저와는 안 맞는 캐릭터였다”고 털어놨다.

“내면에 가진 비스트 중 하나를 끄집어내야 하는데, 사실 저는 별로 없거든요. 제 안에 없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확대해 연기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촬영장에서 배우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영화 ‘베스트셀러’(2010) ‘방황하는 칼날’(2014)에 이어 이성민과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춘 이정호 감독은 이성민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끌어내려 했다. 이성민은 “감독님이 침묵으로 압박을 줬다. 매 장면 오케이 사인이 늦게 났다”면서 “배우가 생각했던 것 이상을 연기하게 했다”고 되돌아봤다.

특히 액션신 가운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이성민을 더욱 힘들게 했다.

“연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많이 패본 것도 처음입니다. 특히 주먹을 휘두르는 ‘훅’이 아니라 앞으로 뻗어서 때리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런 액션은 상대 배우가 리액션하기 힘들어서 사고 위험이 있었죠. 오마담(김호정)과 춘배(전혜진)를 때리는 장면도 그렇고…어휴, 차라리 제가 맞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촬영 과정은 힘들었지만, ‘비스트’는 이성민에게 배우로서 새로운 경험을 안긴 작품이기도 하다. 그는 “원래 캐릭터와 거리감을 유지하는 편인데, 이 작품은 배역에 어느 정도 동화됐다”면서 “특이한 경험이었다”고 떠올렸다.

“이 영화를 계기로 제가 자신 없어 하던 부분을 한 번 더 연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배우는 감정의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어느 경지를 한번 가보면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집니다.”

이성민은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직진하는 악당 연기는 잘 안 된다”면서 “이 세상에는 배우 숫자만큼 캐릭터가 있고, 다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것 같다”며 웃었다.

함께 호흡을 맞춘 유재명에 대해선 “선수”라고 치켜세웠다. “연기는 기본적으로 액팅, 리액팅으로 나뉘는데, (유)재명이와 연기하면서 합이 잘 맞아서 짜릿함을 느꼈어요. 흥행 부담이요? 저는 그냥 재명에게 묻어가려고요. 하하.”

이성민은 드라마 ‘미생’(2014)의 오상식 과장 역을 비롯해 ‘골든 타임’(2012), ‘기억’(2016), 영화 ‘보안관’(2016), ‘바람 바람 바람’(2017) 등에서 주로 이웃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역할로 관객과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영화 ‘공작’에서 북한 고위 간부역을 맡아 부일영화상, 영평상, 백상예술대상 등 각종 영화상 남우주연상을 휩쓸었다. 올해는 ‘비스트’에 이어 ‘남산의 부장들’, ‘미스터 주’(가제)로 관객과 만나며, 현재는 영화 ‘제8일의 밤’을 촬영 중이다.

/연합뉴스

“이젠 코믹에 더해 진한 감정 나올 시기”

‘퍼퓸’ 신성록 “시청률 의식 않고 주어진 상황 최선”

“지금까지 재미, 코믹 위주로 작품이 흘러갔다면 이젠 거기에 더해 인물들의 진한 감정이 나올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배우 신성록(37·사진)은 24일 여의도 KBS 누리동에서 열린 월화드라마 ‘퍼퓸’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전개 방향을 예고했다.

‘퍼퓸’은 예민한 패션 디자이너 서이도(신성록 분)와 향수 하나로 20대와 40대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민예린·민재희(고원희·하재숙)의 로맨틱 코미디다.

신성록은 “초반엔 인물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에피소드로 시작했다. 이제부턴 절절한 로맨스가 있을 수도 있고, 감정선이 진해지기도 한다”며 “앞으로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미디와 로맨스 장르 사이 무게중심에 대해 신성록은 “우리 드라마는 끝날 때까지 웃기다”며 “진지한 정서 속에서도 코믹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 배우 고원희에 대해 “갑자기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친구다. (코미디는) 박수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데 고원희가 리액션을 잘 해준다. 그런 면에서 후배지만 존경한다”고 말했다.

‘퍼퓸’은 월화극 시청률 1위로 시작했다가 MBC TV ‘검법남녀2’에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신성록은 경쟁 드라마에 대해 “전혀 성격이 다른 작품들이라 그냥 시청자분들 취향에 맞게끔 시청률이 나오는 것 같다”며 “시청률을 의식해서 순위를 바꾸기보다는 놓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선배 배우 하재숙과 2인1역으로 연기 호흡을 맞추는 고원희(25)는 “각자 연기하는 민예린, 민재희가 잘 붙을까 고민이었고 이질감이 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며 “초반엔 편집실에 가서 하재숙의 편집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톤을 잡고 연기할지 연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타들의 펫시터 체험

MBC ‘오래봐도 예쁘다’ 다음달 파일럿 프로 편성

MBC TV는 스타들의 반려동물 돌보기를 소재로 한 파일럿 예능 ‘오래봐도 예쁘다’를 다음 달 선보인다.

프로그램에서는 이연복 셰프, 배우 곽동연 등이 반려동물을 돌보는 ‘펫시터’ 체험을 한다. 개그맨 송은이와 지오디 박준형이 진행을 맡는다.

제작진은 24일 기획 의도에 대해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라며 “반려인이 마주할 수 있는 사실적인 문제를 꾸밈없이 다루며 현실적 공감대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6.25 전쟁 제69주년 기념식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검법남녀 시즌2(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퍼퓸(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2019 지구촌 어린이돕기 희망더하기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선다큐 학교! 미래를 보다(재)
1	00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버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경성판타지(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퍼퓸(재)	5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1~2부
9	00 KBS 뉴스 9			
10	00 6.25 특집 2019 국제공동제작 끝나지 않은 전쟁 55 오늘밤 김제동	00 퍼퓸	0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초면에 사랑합니다
11	35 UHD 숨터 40 거리의 만찬(재)	10 회사 가기 싫어 2019	05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걸작 다큐멘터리(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0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로보카 폴리
07:15 꼬마버스 타요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페파 피그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몬카트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마샤와 곰
09:30 원더볼즈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3:00 다큐 오늘 〈손주 오는 날〉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3:40 사건 브리핑-안전상황실
14:30 꼬마버스 타요(재)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5:45 출동! 슈퍼윙스(재)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15 세미와 매직큐브
16:30 딩동댕 유치원1~2
17:00 EBS 뉴스
17:20 명탐정 피트
17:30 페파 피그(재)
17:45 마샤와 곰(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1~5
19: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20:40 세계테마기행 〈알프스 산골기행 2부 티롤의 선물〉
21:30 한국기행 〈여름이면 울주 2부〉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건축탐구 - 집
23:55 미래교육 플러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5일(음 5월 23일 癸巳)

子 36년생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도다. 48년생 기존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가 보인다. 60년생 열과 성을 다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72년생 일사분란하게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84년생 정반대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24, 13

丑 37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떠밀려날 것임에 틀림없다. 49년생 진로를 확인 해 보자. 61년생 요동을 치더라도 별 것 아니니 내버려 둬라. 73년생 가지 않는 길을 살펴본다면 얻는 바가 있으리라. 85년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53, 19

寅 38년생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매어 있다. 50년생 소모적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만 한다. 62년생 입에 발린 덕담보다 속 깊은 충고에 귀 기울여라. 74년생 불가능하다면 미련을 버려야 한다. 86년생 교체해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2, 08

卯 39년생 아무런 소득이 없느니라. 51년생 오로지 현안에 대해서만 몰두할 일이다. 63년생 예견된다면 당연히 피하고 봐야 하느니라. 75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87년생 서로 맞대어서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1, 68

辰 40년생 움직임 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낫다. 52년생 성심으로써 물리칠 수 없는 곤란은 거의 없느니라. 64년생 서둘러야 할 때다. 76년생 무난하게 진행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88년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3, 21

巳 41년생 양호한 판시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53년생 총체적 점검과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65년생 완벽하게 대비 했을 때는 피해갈 수도 있다. 77년생 멀리 보아야 하느니라. 89년생 탈출구를 모색하더라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라. 행운의 숫자 : 12, 45

午 42년생 철저하게 살핀다면 방안이 보일 것이다. 54년생 강구한다면 능히 방책을 찾게 되리라. 66년생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78년생 부작용의 원인이 해소 되어야 효율적으로 전환 된다. 90년생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으로 승부를 걸자. 행운의 숫자 : 78, 86

未 43년생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55년생 도약의 발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67년생 의외의 길사가 보이니 기대해 볼만하다. 79년생 시기의 선택이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91년생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96, 57

申 44년생 원인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 될 것이다. 56년생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68년생 화근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한 단속이 절실하다. 80년생 대상의 선정에 따라서 천차만별할 것이다. 92년생 판세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88, 32

酉 45년생 대박 나겠다. 57년생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낫다. 69년생 미리 선수를 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하게 된다. 81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변수를 안고 있다. 93년생 체면치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5, 60

戌 34년생 자문을 구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46년생 인위적으로 행해서 될 일이 아니로다. 58년생 수효보다 영향력에 비중을 두는 것이 마땅하도다. 70년생 치우치게 되면 후유증이 발생하리라. 82년생 정확히 일치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놀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93

亥 35년생 감정이 앞서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47년생 알맹이는 잃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양태이다. 59년생 숨은 카드를 꺼내들어야 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71년생 우회한다면 더 좋은 길이 보인다. 83년생 취약한 곳은 철저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2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